

대구시 경관자원의 인지특성에 관한 연구

김금용* · 엄봉훈**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환경조경학과 · **대구가톨릭대학교 조경학과

I. 서론

최근 각 도시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저마다의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점점 획일화, 규격화, 대중화 되어 가며 원래 가지고 있던 개성을 잃어가는 도시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역의 부흥을 위해 도시 및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차별화 경쟁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이 가진 고유의 이미지를 통해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더욱 확고히 하고, 지역별 특산품, 광고 등을 통해 지역산업과 관광의 활성화 등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브랜드이미지의 형성은 쉽게 광고와 홍보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지역에 적합한 이미지를 통하여 인식되어지기 때문에, 도시이미지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경관자원은 지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고자 하는 작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대구시의 지역민과 여타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경관자원에 대한 인지도와 그에 대한 선호도 분석을 통해 경관자원이 이미지형성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경관자원과 도시 이미지 특성을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나아가 도시경관 자원의 활용방안과 경관형성계획의 정책방향 그리고 도시 브랜드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II. 이론적 고찰

1. 경관자원의 개념

'경관'이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산이나 들, 강, 바다 따위의 자연이나 지역의 풍경'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를 '경치(景致)', '아름다운 경치' 등으로 풀어서 해석할 수 있다. 경관은 또한 기후, 지형, 토양 따위의 자연적 요소에 대하여 인간의 활동이 작용하여 만들어 낸 지역의 통일된 특성을 말하기도 하며, 전자를 자연경관, 후자를 문화경관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인간 생활 및 경제 생산에 이용되는 광물, 산림, 수산물, 노동력이나 기술 따위

를 통틀어 이르는 '자원'이라는 말이 합쳐져, '경관자원'은 인간 생활 및 경제 생산에 이용되는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관자원의 개념을 '인간환경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자원 중 시각적이고 심상을 자극하는 지리적인 자원으로 지역이 내포하는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가변적인 요소'라고 정의하였다.

2. 관련 연구 동향

경관자원에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규목(1993)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도시경관의 가치를 판단하였고, 이영경(1997)은 경관의 의미와 경관평가에 대해서 연구하였으며, 서주환과 윤재남(1999)은 제주도 경관을 대상으로 GIS와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경관자원평가와 관리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예경록(2000)은 도시이미지 확립을 위하여 대구이미지·경관자원을 분석하였으며, 김용수 등(2001)은 대구시 대표경관에 대한 주민의식 분석을 하였다. 손은영과 김종하(2002)는 대구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도시경관의 이미지에 관하여 연구하였으며, 김종하(2003)는 영주시 대표경관 선정에 대하여 주민의식을 분석하였다. 경관자원의 인지특성 변화에 관한 연구로는, 박현찬 등(2010)이 서울의 대표경관에 대하여 과거에 시행된 설문조사의 비교를 통해 시민인식의 변화를 고찰한 바 있다. 경관자원 인지특성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주민의식을 분석하는 연구가 대다수를 이루었다.

I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조사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대구광역시로 하였고, 내용적 범위는 경관자원의 인지도·선호도를 범위로 하였다. 경관자원의 선정은 2000년 연구(예경록, 2000)에서 사용되었던 45개소 주 경관자원을 기준으로 하여, 시간적 변화에 따라 새롭게 생겨난 경관자원들을 포함시켜 총 57개소의 경관자원을 선정하여 분석의 범위로 하였다. 여기에는 2011년 10월에 대구시에서 선정된

‘대구 12경’도 조사된 경관자원에 포함되었는데 그 중 하나인 강정보(漲)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洑) 중의 하나로서 2011년 10월에 첫 개방을 한 곳이기 때문에 본 연구가 조사된 후에 새롭게 조성된 자원이라 본 연구의 경관자원의 조사항목에는 제외되었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조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대구시의 경관자원과 도시경관에 대한 인지특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인지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앞서 선정된 경관자원에 대한 항목은 2000년 연구를 인용하였고, 지역 내외민의 시점에서 인식차를 발견하고자, 대구지역과 타 지역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인지도에 대한 평가의 경우, 질문을 3개의 항목으로 하여 해당되는 경관자원에 대해 들어본 적도 가본 적도 없는 경우, 직접 가본 적이 있는 경우는 ‘경험도’, 가본 적은 없지만 들어봤거나 각종 매체를 통해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는 ‘단순 지각도’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파악하고자 한 ‘인지도’는 ‘경험도’와 ‘단순 지각도’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하였다. 선호도 평가의 경우 「아주 불량-불량-보통-양호-아주 양호」라는 5점 리커트척도로서 평가하고 이에 대해 각각 1, 2, 3, 4, 5점으로 평점화하였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분석 자료의 조사 대상자는 총 446명으로 여성 195명(44.2%), 남성 246명(55.8%)이다. 연령대별로는 21세에서 30세 사이 120명(27.2%), 41세에서 50세 사이 115명(26.1%)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대구시 거주지별 응답으로는, 2011년도 대구시 통계자료의 각 구별 인구분포 현황과 비교해봤을 때, 수성구의 응답이 대구시 통계자료 대비 8.8% 높고, 서구는 3.1% 적게 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학생이 30.7%, 사무직과 주부가 12.1%로 높았다. 학생의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난 이유로는 조경학과 대학생 70여명이 포함되어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학생, 주부, 기타를 제외한 직업군은 56%로 나타났다.

대구시 경관자원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평가를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통한 인지도의 분석 그리고 응답자의 특성과 경관자원과의 관계 분석을 교차분석을 통해 실시하였고, 응답결과에 대한 신뢰성분석(Reliability Analysis), 대표경관과 도시경관요소의 단계적 회귀 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 등을 사용하였고, 분석은 SPSS Ver 19.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경관자원의 인지도와 선호도 평가

경관자원은 이동성이 없는 자원이라는 특성상 과거와 크게 변하지 않아, 기존에 연구된 자료들과 최근에 만들어진 경관자원을 바탕으로 선정하여 분류를 하였다. 기존 대구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의 경관자원을 살펴보았다.

예경록(2000)의 연구에서는 대구시 45개소 경관자원을 역사문화적 자원과 도시문화적 자원, 공원·녹지 자원, 특정가로·산업 자원 등으로 분류하였고, 김용수 등(2001)의 연구에서는 대구시 12개소의 경관자원을 자연경관과 인공경관, 역사경관 등 세 개의 범주로 묶어 분류하였다. 손은영과 김종하(2002)의 연구에서는 대구시 경관요소를 물리적 요소와 비물리적 요소로 나누었는데 경관자원을 물리적 요소에 포함시켜 이를 다시 자연·역사적 요소와 건물 요소, 도시 요소 등 세 가지 범주로 묶어서 경관자원에 대한 인지특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경관자원들과 조경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 설문조사와 전문가들이 추천한 곳을 합하여 총 57개소를 선정하고, 이를 역사·유적 자원과, 문화적 자원, 자연·공원 자원, 가로·산업 자원 등 4개의 범주로 분류하여 역사·유적 자원 10개소, 문화 자원 15개소, 자연·공원 자원 19개소, 가로·산업 자원은 13개소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1) 전체 경관자원의 인지특성 분석

대구 경관자원 인지도, 선호도를 평가한 결과는 표 1과 같고, 전체 인지도는 80.3%로, 선호도는 평점 3.46으로 나타났다. 이 중 문화적 자원의 인지도가 가장 높고, 가로·산업 자원, 자연·공원 자원, 역사·유적 자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지도가 가장 낮은 역사·유적 자원과 반대로 가장 높은 문화적 자원은 21.5%의 차이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선호도의 평가를 보면 문화적 자원이 평점 3.53으로 가장 높고, 자연·공원 자원, 역사·유적 자원 등의 순이었으며, 가로·산업 자원이 평점 3.32로 가장 평가가 낮았다. 역사·유적 자원은 인지도가 낮지만 선호도 평가에서는 높게 나타났고, 가로·산업 자원은 인지도는 높지만

표 1. 경관자원 인지도, 선호도 평가

순위	유형	인지도 (%)	경험도 (%)	단순지각도 (%)	선호도평점
1	문화적 자원	88.8	64.5	24.2	3.53
2	가로·산업 자원	84.1	65.6	18.4	3.32
3	자연·공원 자원	81.3	59.4	21.9	3.51
4	역사·유적 자원	67.3	37.1	30.2	3.49
전체		80.3	56.7	23.6	3.46

선호도는 낮게 나타났다. 대구 경관자원 이미지 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지도와 선호도가 높은 문화적 자원을 잘 활용함과 동시에 인지도·선호도가 낮은 역사·유적 자원, 가로·산업 자원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각 경관자원들 중에서 선호도 유의차를 보이는 자원들을 모아서 대구지역민과 타지역민에 대해 알아 본 결과, '갯바위'와 '동화사', '대구수목원', '앞산공원' 등이 큰 유의차를 보인 자원들이며, '동대구로'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구지역민의 선호도가 높았다. 특히 '동대구로'만이 타지역민의 선호도가 높게 나왔는데, 이는 주 이용 교통시설인 동대구역이나 동대구 고속터미널, 동부정류장 등을 통하여 대구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맞이하여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동대구로'는 대구시에 대한 첫 느낌을 맞이하는 장소인 만큼 각별히 경관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역사·유적 자원에 대한 분석

역사·유적 자원의 전체적인 평균은 인지도 67.3%, 선호도 평점 3.49이다. 대구지역민과 타지역민에 대한 역사·유적 자원의 인지도·선호도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인지도를 살펴보면 모든 자원에서 차이가 인정 되었고, '불로동 고분군'을 제외하고는 대구지역민의 인지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선호도에서 유의차가 인정된 자원은 '동화사', '갯바위' 2개소로 대구지역민의 선호도가 높았으며, '불로동 고분군'의 경우 타지역민의 선호도 평가가 아주 조금 높게 나타났으나 차이가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문화 자원에 대한 분석

문화 자원의 전체 평균은 인지도 88.8%, 선호도 평점 3.53으로 나타났다. 선호도 평점의 경우 '대구스타디움'이 평점 4.02로

표 2. 대구지역민과 타지역민 역사유적자원의 경관평가

역사·유적 자원	대구지역민		타지역민		검정	
	인지도(%)	선호도	인지도(%)	선호도	χ^2	t
갯바위	98.4	4.16	77.4	3.86	**	**
동화사	94.6	4.11	56.6	3.67	**	**
약전골목	92.3	3.48	56.5	3.50	**	
계산성당	79.8	3.65	45.2	3.58	**	
도동서원	69.7	3.38	42.7	3.22	**	
불로동 고분군	71.1	3.22	89.5	3.24	**	
현풍 석빙고	64.8	3.30	43.5	3.14	**	
영남 제일관문	61.7	3.45	39.4	3.25	**	
제일교회	63.5	3.25	44.3	3.19	**	
진골목	51.6	3.32	34.8	3.16	**	
평균	74.7	3.53	52.9	3.38		

* $p<0.05$, ** $p<0.01$

표 3. 대구지역민과 타지역민 문화적 자원 경관평가

문화적 자원	대구지역민		타지역민		검정	
	인지도(%)	선호도	인지도(%)	선호도	χ^2	t
대구스타디움	99.3	4.04	92.2	3.95	**	
엑스코	97.7	3.75	78.3	3.61	**	
롯데백화점	97.8	3.72	86.0	3.47	**	*
대구오페라하우스	94.5	3.81	70.2	3.68	**	
국립 대구박물관	93.9	3.71	66.6	3.53	**	
서문시장	97.1	3.54	83.5	3.51	**	
이월드	97.8	3.41	85.3	3.47	**	
문화예술회관	93.6	3.54	64.4	3.35	**	
수성아트센터	90.3	3.66	63.4	3.47	**	
칠성시장	97.8	3.35	80.0	3.28	**	
대구/동아 백화점	98.4	3.31	88.7	3.31	**	
평화시장	95.8	3.27	66.1	3.31	**	
교동시장	93.6	3.31	65.2	3.28	**	
이시아폴리스	84.5	3.53	51.3	3.37	**	
동구문화회관	86.8	3.42	54.8	3.25	**	
평균	94.5	3.55	73.0	3.45		

* $p<0.05$, ** $p<0.01$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평점 3.50이상의 자원들은 '국립 대구박물관'과 '문화예술회관'을 제외하고 모두 2000년 이후에 생겨난 자원들이다. 이에 반해 2000년 이전에 형성된 자원들로서 문화 자원의 경우 신축건물이나 리모델링된 건물들의 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대구지역민과 타지역민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이월드'의 경우 대구에서는 가장 큰 규모를 가진 종합테마파크로서 오래되어 선호도가 낮아졌으나, 명칭 변경과 새 단장(2011년 초) 후 다시금 대표경관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구의 경관자원유형 중에서 문화적 자원의 인지도와 선호도만이 타지역민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4) 자연·공원 자원에 대한 분석

대구지역민과 타지역민에 대한 자연·공원 자원의 분석은 표 4와 같다. 대구지역민과 타지역민 모두 '안심습지'와 '월광수변공원' 등의 자원들이 인지도가 낮았다. 선호도의 경우 '달성공원'만이 타지역민과 대구지역민의 선호도가 같을 뿐 나머지 자원들 모두 타지역민의 선호도는 떨어졌다. 선호도 평가에서 유의차가 인정된 것은 '팔공산 도립공원', '비슬산 군립공원', '앞산공원', '신천변 녹지', '경상감영공원', '2.28공원' 등이다. 이들 모두 대구지역민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타지역민을 대상으로 하여 선호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5) 가로·산업 자원에 대한 분석

표 4. 대구지역민과 타지역민 자연·공원 자원 경관평가

자연·공원 자원	대구지역민		타지역민		검정	
	인지도(%)	선호도	인지도(%)	선호도	χ^2	t
팔공산 도립공원	97.7	4.04	89.9	3.80	**	*
대구수목원	96.5	3.92	52.2	3.45	**	**
두류공원	96.8	3.89	78.5	3.59	**	*
앞산공원	96.5	3.78	63.4	3.42	**	**
비슬산 군립공원	92.7	3.91	64.3	3.55	**	*
국채보상공원	96.9	3.60	69.7	3.53	**	
달성공원	97.5	3.44	76.8	3.44	**	
수성유원지	94.9	3.52	57.1	3.44	**	
망우공원	95.9	3.46	66.1	3.38	**	
228공원	92.7	3.52	58.0	3.25	**	*
동촌유원지	93.6	3.35	59.8	3.17	**	
냉천 자연농원	89.5	3.47	43.7	3.30	**	
신천변녹지	83.9	3.60	45.0	3.34	**	*
건들바위	90.8	3.31	50.0	3.08	**	*
화원유원지	89.9	3.24	42.8	3.15	**	
경상감영공원	84.5	3.39	47.3	3.18	**	*
월광수변공원	78.0	3.53	37.5	3.39	**	
금호강변 녹지	79.6	3.35	42.9	3.26	**	
안심습지	62.7	3.32	36.9	3.29	**	
평균	90.0	3.56	56.9	3.36		

* $p < 0.05$, ** $p < 0.01$

표 5. 대구지역민과 타지역민 가로·산업 자원 경관평가

가로·산업 자원	대구지역민		타지역민		검정	
	인지도(%)	선호도	인지도(%)	선호도	χ^2	t
동성로	99.0	3.70	90.2	3.77	**	
팔공산 주변도로	94.6	3.81	66.9	3.53	**	*
신천, 앞산순환로	96.5	3.51	58.9	3.28	**	*
들안길	92.4	3.53	55.3	3.42	**	
로테오거리	93.9	3.45	63.9	3.32	**	
동대구로	94.3	3.37	69.7	3.89	**	*
아시골목	93.0	3.38	57.1	3.33	**	
봉산 문화거리	89.5	3.47	52.7	3.38	**	
성서공단	95.5	3.03	65.2	3.16	**	
아양교	96.6	3.07	59.4	3.09	**	
북부정류장	95.9	2.70	49.2	2.90	**	
카페거리	74.6	3.34	48.6	3.31	**	
제3공단	87.2	2.82	49.5	3.01	**	
평균	92.5	3.32	60.5	3.33		

* $p < 0.05$, ** $p < 0.01$

대구지역민과 타지역민의 가로·산업 자원의 비교 분석은 표 5와 같다. 유의차가 인정되는 자원들 중 타지역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자원은 '동대구로'가 있는데, 외부 방문객이 많은 '동대구로'의 타지역민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이 자원을 특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로·산업 자원 타지역민의 선호도는 경관자원의 나머지 유형들 중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특히 노후화가 심한 '북부정류장'과 공단 지역인 '제3공단' 등의 자원들을 환경을 개선시켜 대구이미지의 상승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가 가지는 경관자원들의 인지도와 선호도 분석을 통해 경관자원이 도시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고, 대구시 경관이미지들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특성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경관자원 전체적인 인지도와 선호도에 대한 평가의 경우 '문화적 자원'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역사·유적 자원'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낮았고, '가로·산업 자원'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낮았다. 문화적 도시라는 이미지를 형성하기 유리한 결과를 얻었으나 지역의 고유특성을 나타내는 '역사·유적 자원'은 유일하게 과거보다 선호도와 현재의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둘째, 경관자원 전체의 이미지 선호도·인지도 구조에 대한 결과는, 선호도는 높으나 인지도가 떨어져 앞으로 대표경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신천변 녹지'·'월광수변공원'·'계산성당'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잠재적인 자원으로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하여 도시 이미지 향상에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

셋째, 대구지역과 타지역민의 선호도 관계는, 대체적으로 비례관계를 보였으나 지역민과 타지역민의 선호도에 반비례 관계를 보여주는 10개소의 자원들에 대해서는 경관개선에 대한 방향 설정을 다르게 하여 선호도를 올릴 수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도시브랜드이미지를 활성화 시켜, 도시이미지를 높이려는 단체·지역주민들과 타지역민들의 인지특성과의 관계 나아가 도시이미지와 경관자원들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구시 경관자원과 도시이미지의 인지특성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그리고 도시경관자원의 활용 방안과 경관형성계획의 정책적 제언 그리고 도시브랜드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인용문헌

1. 권보민, 이강희(2004) 주·야간 도시경관 이미지 비교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24(2): 919-922.
2. 김규원, 김영철(2010) 대구의 정체성 정립 및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방안. 대구경북연구원. p. 120.

3. 김선영(2009) 도시 브랜드 이미지 형성요소로 본 공공경관 디자인 고찰. 한국기초조형학회, 기초조형학연구 10(3): 69-79.
4. 김용수, 김수봉, 팍지영(2001) 대구시 대표경관에 대한 주민의식 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36(3): 223-240.
5. 김종하(2003) 영주시 경관자원에 관한 주민의식 분석.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3(1): 475-479.
6. 박영춘(2002) '도시의 이미지 측정'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국토계획 37(4): 29-40.
7. 박현찬, 이상창, 정상혁, 이승지, 김승주, 박현정(2010) 서울 도시경관에 대한 인식 변화와 차이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도시연구 11(4): 33-49.
8. 변재상(2008) 도시별 이미지 전략 요인의 경향 분석. 한국조경학회지 36(2): 80-98.
9. 변재상(2008) 개인차 척도법을 이용한 도시이미지 인지 경향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6(4): 83-99.
10. 변재상(2010) 도시이미지 인지와 선호등위선 개발. 한국조경학회지 38(3): 1-14.
11. 변재상, 김대수, 이정수(2010) 대전시 상징물과 도시이미지에 대한 비교 분석. 한국조경학회지 38(2): 53-63.
12. 서주환, 윤재남(1999) GIS와 군집분석을 이용한 경관자원평가와 관리. 한국조경학회지 27(3): 88-97.
13. 손은영, 김종하(2002) 도시경관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2(2): 659-662.
14. 신민식, 서진형(2011) 울산광역시의 도시이미지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29(1): 305-321.
15. 예경록(2000) 도시이미지 확립을 위한 대구광역시의 경관형성계획에 관하여. 한국연구재단 국내 박사 후 연수과정 지원 논문 pp. 1-45.
16. 이규목(1993) 경주시 도시경관과 그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0(4): 39-53.
17. 이영경(1997) 경관의 의미와 경관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4(4): 59-73.
18. 정만모(2008) 신도시 도시이미지의 형성요소가 도시환경인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학과 박사학위논문. pp. 1-101.
19. Beckley, R. M.(1979) Urban Design : Introduction to Urban Planning. New York: McGraw-Hill.
20. Boulding, Kenneth E(1956) The Image: Knowledge in Life and Society. Ann Arbor: The Uni. of Michigan Press.
21. 石見利勝, 田中美子著(1992) 地域イメージとまちづくり. 技報堂出版株式会社 pp. 182.